

문헌정보학 발전을 위한 국가연구지원기관의 역할*

The Innovative Role of National Supporting Agencies for Developing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산업기술정보원 정보자료실 편역
(Information Resources Dept., KINITI, Trans.)

초 록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방법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영국도서관 연구개발부(이하 BLRDD)와 미국도서관진흥재단(이하 CLR)을 현지에서 조사하였다. 본고에서는 양기관의 연구개발 지원활동의 역사, 조직의 개요, 지원방법, 대상분야의 특징 등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양기관이 문헌정보학계에 이바지한 역할을 기술하고자 한다. 그 역할은 다음의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① 문헌정보학의 선도적 연구를 위한 자금지원과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기여
- ②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육성
- ③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개선과 이의 도서관 보급
- ④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수준의 연구교류 기회 제공

키 워 드

문헌정보학 연구, 도서관 정보 서비스, 정보 기술, 학문 영역 형성, BLRDD, CLR

ABSTRACT

I had a chance to learn about grants made by British Library Research and Develop

* 본고는 柳與志夫의 「圖書館情報學の發展における全國的研究開發助成機關の役割：BLRDDとCLRに見る」를 번역·편집한 것임. 柳與志夫, “圖書館情報學の發展における全國的研究開發助成機關の役割：BLRDDとCLRに見る,” 圖書館學會年報, 42(1), 1996(March), pp. 49-56.

ment Department in London and the Council on Library Resources in Washington in my studies designed to produce an institutional vision of suppor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Japan. In this article, I have tried to elucidate contributions of the two agencies to the librarianship and research communities, reviewing their histories, management process and some features of research areas which meet their standards of providing grants.

KEYWORDS

Librarianship,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brary service research and development, Research community, BLRDD, CLR

I. 서 론

일본의 문헌정보학 연구는 영국, 미국 등의 연구와 상이하고, 또한 문헌조사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연구개발 자금의 부족이다. 한편 영국은 영국도서관연구개발부(British Library Research and Development Department : 이하 BLRDD), 미국은 도서관진흥재단(Council on Library Resources : 이하 CLR)이 각각 그 나라의 문헌정보학 연구를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역할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논문은 1994년 양기관을 현지에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양기관의 연구개발 지원활동의 역사와 현황을 설명하고, 향후 문헌정보학의 연구개발 지원방법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삼고 싶다.

II. BLRDD와 CLR의 활동

1. 역 사

(1) BLRDD

BLRDD의 전신은 1865년 과학·산업연구성(DSIR)의 조직 개편에 의해서

설치된 과학기술정보국(Office for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OSTI)이다. 영국정부는 60년대부터 과학기술정보의 발생에서 이용에 이르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이를 지원하는 정보과학과 컴퓨터시스템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OSTI는 이를 위한 정책수행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 흐름(사이클)의 통제를 지향하는 정보시스템 연구 등에 자금지원을 시작하였다.

영국은 과학기술정보정책의 일환으로 국내의 주요한 문헌정보 작성 및 제공 기관을 통합하여 1973년 영국도서관(The British Library: BL)이 설립되었으나, BL과 OSTI는 더욱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우선, BL 창설의 기본계획을 작성한 전영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인 Dainton 경은, 동시에 OSTI의 자문위원회 위원장이었다. 또한 1972년 영국도서관법의 성립과 동시에 관장에 취임한 Hookway는 1969년까지 OSTI의 국장을 역임하였다. 이와 같은 인적관계를 배경으로 OSTI는 1974년에 국가수준의 도서관 정보서비스와 문헌정보학 연구개발을 연계시킴을 목적으로 BL에 통합되고, BL의 연구개발부로 되었다. 따라서 설립 초기부터 BLRDD는 BL 자체를 위한 연구개발보다는 정보과학과 문헌정보학계 전체를 위한 연구개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조직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장 직속으로 재편되었으며, 또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에 의한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for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Department: ACORDD)를 1975년에 발족시켰다.

BLRDD의 목표는 정보의 유통과 제공을 개선하기 위하여

- ① 연구대상 우선분야를 결정하고, 이들 분야의 연구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
- ② 정보서비스·출판물·회의·세미나 등을 통해서 연구성과를 보급함
- ③ 국내 및 국제적 연구경험을 지원함
- ④ 영국도서관의 연구활동을 조정함
- ⑤ 연구기술의 발전을 지원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BLRDD가 자체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지 않고, 연구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연구비 지원을 통해서 진흥을 도모한다는 점은 OSTI 시절과 동일하다. 이러한 취지로 출발한 BLRDD이지만, 당초 의도한 자금 가운데 신청을 받아서 지원

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따른 것은 45%(1975년 실적)에 지나지 않았고, 나머지는 BLRDD가 연구자 등에게 일임하여 수행한 연구프로젝트였다.

이러한 이유는 ① 도서관정보학의 「학계」가 아직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 구체적으로 프로젝트의 주체가 될만한 인재의 부족, ② 도서관정보학의 대상영역이 불분명하고, 더우기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연구와 개발의 구분도 불명확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 후의 착실한 연구지원이 계속되어 이에 자극된 연구활동의 활성화(예를들면, 78년의 도서관·정보연구그룹의 설립)는 대학에서 문헌정보학부의 정비와 더불어 질적·양적 측면에서 연구를 담당할 인재가 육성되었고 연구영역이 명확하게 되었다. 또한 연구성과를 도서관현장에 적용함에 있어서도, 1984년 이래 도서관정보기술센터의 지원에 의한 도서관자동화 기술개발의 성과가 영국내에 광범위하게 보급된 것처럼 많은 성과들을 가시화하기에 이르렀다. 지원대상분야의 우선순위는 도서관계 현황과 BL의 자체 방침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년마다 재검토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정책지향적인 측면이 강한것 같다.

최근의 문제점은 예산의 압박이고,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현재의 지원액을 발족당시의 금액과 비교하면, 그 가치는 절반이하로 감소하고 있다(74~75년도 £81만/92~93년도 £36만). 지금까지 연구개발부 활동의 특징을 두가지로 요약하면, ① 지원대상분야 선택에 관한 연구 및 실무 양면에서의 선도성, ② 중점 지원대상기관의 지속성 등을 들 수가 있다.

이러한 사례는 Bath대학의 조성으로, 1973년 「목록의 비교연구」로 처음 연구를 시작한 이래로 이 대학은 지속적인 지원을 받았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BLRDD는 동대학을 국내 도서관정보네트워크(UKOLN)센터로 육성함에 성공했다. 도서관통계의 조사·연구센터로서 Loughborough대학도 동일한 사례이다.

(2) CLR

CLR은 주로 학술도서관을 대상으로 많은 도서관에서 직면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도서관 정보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1956년 포

드재단에 의해 설립된 재단이다. 포드재단이 이와 같은 설립 결정을 한 배경에는 포드재단이 도서관서비스의 개선측면에서 컴퓨터의 역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더우기 미국의 각 도서관으로부터 지원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여 당초의 CLR의 지원대상분야는 컴퓨터를 이용한 기술개발과 도서관의 관심이 높은 서지통정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60년대 후반부터 도서관 경영, 전문직의 기술향상, 이용자 요구의 평가, 고등교육과 도서관과의 관계 등으로 그 대상분야는 확대되었고, 70-80년대에 들어와서는 도서관시스템과 서비스, 새로운 정보기술의 도서관 적용 등 더욱 더 많은 분야가 포함되었다. CLR의 방침은 BLRDD와 마찬가지로 장래 유망한 연구분야로 성장할것이라고 판단되는 주제를 중점적인 지원대상 분야로 선정하고, 더우기 전국적인 도서관서비스 혹은 문헌정보학 연구개발의 핵심이 될만한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수행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사례로서, CLR의 설립이래 중시되어온 서지통정분야에 대한 70년대의 자금지원을 들 수 있다. OCLC의 시스템 개발(71년), IFLA 목록위원회의 설립(71), ANSI·Z39위원회를 통해서 ISSN의 국내 표준화(72), 전국 서지통정조정위원회의 성립(74), OCLC·RLIN 등 각종서지정보네트워크의 지원(74-78), 의회도서관네트워크자문위원회의 설립(76), 후에 LSP등에 연결된 서지서비스 개발 프로그램의 구현(78), 가동중인 OPAC의 평가(80) 등이 있다. 이와같은 연구가 80년대, 90년대의 서지통정분야의 이론적, 실천적 측면에서 발전되어 온 것을 생각해 볼때, 선도적인 CLR의 역할이 높이 평가된다.

자료보존연구와 이에 대응한 도서관계 제반 활동에서도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CLR 활동의 특징으로서 연구지원과 새로운 도서관 활동의 선구적인 역할에 덧붙여 정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인재의 양성에 노력을 기울인 것을 들 수 있다. 전문적 기능 및 경영관리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학과 협력하여 실무자들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예를들면, 74~93년의 학술도서관 경영교육프로그램).

2. 활동개요 및 운영방법

(1) 조직과 통계

BLRDD, CLR의 양기관 모두 연구지원의 계획 및 조정 업무가 주요 업무이고, 연구개발을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조직의 규모는 대체로 작은 편이다.

BLRDD는 정보정책과, 연구지원과, 개발과, 상담업무·국제실의 3과 1실, 부장이하 25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BL 뿐만 아니라 전체 도서관계를 위한 정책개발과 연구컨설팅, 국제관계의 정책조정도 직무범위로 규정되어 있다.

CLR의 경우는 BLRDD와 비교하면 더욱 규모가 작고, 지침의 작성과 전문분야의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각계 대표자 등의 비상근 직원을 제외하면, 전임 직원은 1994년 말 현재 이사장 이하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양기관의 연구지원액, 지원건수, 그 결과물인 보고서의 발행건수는 다음의 표와 같다.

지원활동의 개요

	BLRDD (1991~1992년도)	CLR (1993회계년도)
조성액	£ 136.5만	\$ 85만
조성건수	218	68
(신규)	(72)	(15)
(진행중)	(146)	(53)
보고서	53	54
발표건수		(잡지논문 31건을 포함)

BLRDD는 다음의 5개 분야를 연구개발 지원의 주요 목적으로 한다.

- ① 도서관 및 정보시스템의 개선
- ② 정보유통과 제공의 개선
- ③ 정보처리 기술의 개발
- ④ 정보전문가의 교육 및 연수
- ⑤ 정보유통의 발달과 효율화

BLRDD의 지원대상자는 연구기관(대학 등) 및 도서관에 근무하는 개인이 대부분인 반면에, CLR은 기관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 되고 있다. CLR은 지원 목적으로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효율성의 증진」이라는 일반적

인 규정만을 표시하고 있을 뿐이다.

(2) 운영방법

1) 지원대상분야 (주제)의 우선순위 결정방법

양기관 모두 사무국 내부에서 먼저 검토하고 원안을 작성한 후에, 도서관정보학 연구자와 각종 도서관원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이에 반영시키고 있다. 또한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수년마다 우선순위를 변경하고 신규주제를 추가하고 있다. CLR의 경우 운용자금의 대부분을 다른 유력재단으로부터 지원받기 때문에 그 재단의 의견과 상당히 밀접한 주제가 중심이 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양기관 모두 신규분야의 개발과 도서관·정보서비스와 문헌정보학에 영향력을 가진 연구분야를 선정하고 있다. 또한 BLRDD에서는 타분야에서 개발된 제반 기술을 도서관계에 처음으로 적용해 보는 실험적 개발이 핵심이 되고 있다.

2) 응모방법

지원희망자는 공식적인 응모전에 비공식적으로 사무국과 접촉하여 응모내용과 형식을 조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LR는 응모양식에 대해 일반적인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BLRDD는 서식을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간단한 안내자료를 발행하고 있다.

3) 지원대상자의 선발방법

일반적으로 BLRDD는 다음의 단계를 거쳐서 응모자 중에서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 ① 신청 희망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내부 직원에 의한 사전 검토 (개선할 만한 점이 있으면, 이 시점에서 신청자와 협의한다)
- ② 신청자에 의한 공식 제안서의 제출
- ③ 외부전문가 (주로 신청주제를 전공하는 문헌정보학연구자)의 심사에 의한 평가 (심사는 보통 3-4인,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는 이보다 많다)
- ④ 그 결과에 따라서, 신청허가·일부교정·불가의 판단과 지원금액을 내부에서 결정

CLR은 사무국내의 프로그램 운영담당자의 재량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지만, 전액 보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신청기관 자체(1956~1993년의 38년간

신청자의 99%가 대학 등의 기관)의 자금준비 유무가 선발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양기관 모두 프로젝트 실행가능성, 혁신성, 응용가능성 등 세가지 부분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4) 연구프로젝트 수행중의 조사

BLRDD에서는 각 프로젝트마다 담당자(Project manager, 전부 6명)를 정하여 프로젝트 책임자와 항상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각종 회의의 개최와 중간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더우기 장기 혹은 대규모의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소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CLR에서는 프로그램 운영담당자가 전체를 통괄하고 필요에 따라서 프로그램 조언 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운영의 조정수단으로서 조성금의 지출을 당초 일괄적으로 지출하지 않고, 일부를 유보함으로써 프로젝트 진행을 촉진시키고 있다.

5) 연구성과의 입수와 보급

BLRDD의 지원금 수급자는 최종보고서의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다. 제출보고서의 저작권은 BLRDD에 있지만, 성과의 보급을 위하여 보고서 제출자의 학술지 투고를 권장하고 있다. BLRDD는 이러한 연구성과의 보급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① BLRDD 자체의 보고서 보다는 일반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민간출판물로서 공표하며, ② 연구프로젝트 책임자의 성과보급 노력을 권장하기 위하여 그 방법에 대한 안내 지침서를 작성하고, ③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회의를 주최하는 등 보급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CLR의 경우 독자적인 보고서의 제출은 의무화 하지 않고, 연구책임자는 자신의 논문으로 발표할 수가 있다. 그러나, 논문중에 CLR에 대한 출처를 밝혀야 한다. CLR에 보고서로 제출할 경우는 CLR에 저작권이 귀속되지만, CLR에서는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것은 성과의 보급을 중시하기 때문이고,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연구성과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6) 국립도서관을 위한 연구

BLRDD는 영국도서관의 일개 부서이기 때문에 동도서관의 업무·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 연구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필요한 연구과제를 설

정하기 위하여 각 부서 대표로 구성되는 내부위원회가 BLRDD 내에 설치되어 있다. 여기에서 검토사항은 일반적인 지원대상 주제 및 지원대상자의 선정에도 반영시켜, 그 성과를 실제의 업무 및 서비스의 개선에 직접 적용하고 있다.

한편 CLR은 미국의회도서관과 공식적인 관계는 없지만, 초대 이사장인 Clapp씨가 의회도서관 부관장으로부터 진출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인적 부분을 포함하여 그 관계는 매우 깊다. 또한 연구지원 기관중에서도 미국의회도서관은 금액과 건수 양면에서 역대 2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1956~1993년의 누계에서 280만달러(현재의 900만 달러에 해당), 87건을 제공받고 있다(건수에서 제1위는 ALA의 162건, 제3위는 미국연구도서관협회의 38건). CLR에 의한 연구지원은 독자적으로 연구개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미국의회도서관에서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MARC의 개발과 보급, 서지정보 네트워크의 형성, LSP, NACO 등의 국가적인 서지통정 계획,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보존실험실의 설치 등 동도서관의 발전에 없어서는 안될 신규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지원금을 사용하고 있다.

3. 지원대상분야의 특징

Research Plan 1993-98에 의하면, BLRDD의 중점 지원대상분야는 다음의 네가지 부문에 관한 연구개발이다.

① 정보기술

정보네트워크, 전자출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원거리 문헌전송, 정보자료의 디지털화, 새로운 정보검색(이론, 응용 측면), 화상처리와 멀티미디어(이론, 응용 측면)

② 정보와 사회

정보관리와 조직에 있어서 정보의 역할, 개별 학문분야(특히 인문학)에서 정보의 제문제, 특정 그룹(고령자, 아동, 실업자 등)의 정보요구와 행동, 일반 주민의 정보 요구와 행동,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질, 정보이용 교육

③ 정보서비스의 혁신

국가적인 정보시스템에 의한 개인에 대한 정보서비스, 도서관협력과 자원공유, 성능 측정, 도서관경영에 관한 경제적 모형, 종합적 경영정보시스템으로 도서관시스템의 통합, 정보전문가의 역할과 계속교육

④ 정보정책과 정보의 경제

「이용자연구」 「온라인서비스와 네트워크」 「자료보존」 「수집방침」 「도서관간 대출자료의 이송」 「도서관자동화」 등 BLRDD가 1977년 당시에 선정한 지원 우선주제는 같은 시기의 영국 문헌정보학의 2대 연구동향인 「컴퓨터를 응용한 정보검색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시소러스, 초록 및 색인법 등의 연구」와 「저자에서 이용자에 이르는 정보흐름에 관한 연구」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BLRDD의 중점 지원대상분야인 상기의 ①~④는 현재 영국의 문헌정보학 연구 또는 현장의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현황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CLR는 1994년 연보에 의하면 다음의 네가지 분야를 지원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① 인적자원의 개발

도서관직원의 교육과 리더쉽, 문헌정보학 교육의 커리큘럼, 도서관정보 전문직의 장래 등

② 도서관서비스의 경제적 측면

서비스 비용의 분석, 새로운 재정운용, 비용대 이익분석, TQM 등

③ 정보 하부구조(Infrastructure)의 정비

특정 학문분야에 관한 도서관 정보시스템의 구축, 학술도서관의 지침작성과 우선 순위, 도서관 네트워크 등

④ 정보접근과 정보처리

정보탐색과정, 서지통정, 시소러스, 자료보존, 장서구축, 미래의 목록, 정보기술의 이용 등

양기관의 중점분야를 비교하면, 많은 공통점이 발견된다. 이를 종합하면 아래의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새로운 정보기술을 도서관정보시스템에 적용

②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사회, 경제, 정치적 측면

③ 정보사회를 지원하는 인재의 육성

④ 정보발생과 정보유통의 장래

이와 같은 동향은 각 국가에서도 미래의 연구 방법을 설정하기 위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연구개발 지원이외에 양기관 모두 특정목적에 위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예를들면, BLRDD의 BNBRF(British National Bibliography Research Fund)는 ① 컴퓨터를 매개로 한 출판사·서적상·도서관의 상호관계, ② 도서와 그 이용, ③ 정보기술의 도서에 대한 영향 등의 세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기금이고, 문화재부의 출자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연구개발을 진행시킬 목적으로 PLDIS(Public Library Development Incentive Scheme) 등과 연합하여 BLRDD가 그 운용을 위탁 받았으며, 그 성과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4. 지원이외의 활동

(1) 대외관계

1) 학계의 육성

주로 연구지원을 통해서 두가지 면에서 학계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새로운 연구분야의 발굴과 유도이며, 서지정보네트워크 형성과 전자출판(BLRDD), 서지정보의 표준화와 자료보전(CLR) 등에 대한 양기관의 선도적 역할은 자국내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다.

또한 연구를 수행하는 인재의 육성도 양기관의 중요한 활동이다. 설립당시 아직 확립되지 않았던 문헌정보학계 형성에 있어서, BLRDD가 연구지원을 통해서 연구자의 양성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한편 CLR도 현직의 도서관원들의 연구능력 육성에 특히 노력을 기울였고, Fellowship 프로그램(현직 도서관원에 대한 조사연구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연수의 일종으로서 도서관정보학부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과 협력으로 일정기간 동안 국내유학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등의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다.

2) 국내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BLRDD는 일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특정연구기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그 기관을 자국내의 특정분야 연구센터로 육성하고 있다. 그 예

로서는 Loughborough대학을 센터로 하는 ELVYN(학술정보의 전자화를 주제로 하는 연구 프로그램)과 LISU(도서관통계), Oxford대학의 OHC(인문정보의 이용), City대학의 OKAPI(OPAC), Bath대학의 UKOLN(도서관정보네트워크) 등이 있고, 이들 각각은 도서관서비스의 연구 및 현장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또한, 양기관 모두 공식, 비공식으로 각종 관련기관과의 협력, 지원을 행하고 있다. BLRDD는 자금지원을 통해서 영국내 도서관원들의 자발적 연구조직인 「문헌정보학 연구그룹(LIRG)」의 형성과 새로운 정보기술을 도서관에 적용하고자 하는 「도서관정보기술센터(LITC)」의 설치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CLR은 문헌정보학 관련분야의 표준화를 중시하고 있으며, 미국표준화기구(ANSI)의 하부조직인 Z39위원회에 항상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더우기 「자료보존·접근위원회」를 조직하고, 전미국에서 자료보존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킨 CLR의 공헌은 높게 평가되고 있다.

3) 민간과의 협력

민간 관련기관과의 협력관계 강화는 양기관 모두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BLRDD에서는 1994년 민간 연구기관과 공공으로 연구프로젝트 2건을 수행하였는데, 대학의 연구자와 비교하여 연구성과의 권리 등을 포함하는 계약관계의 복잡성이 향후의 연구확대에 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연구결과 보고서의 출판에서도 BLRDD가 직접 출판하는 것은 아니고, 영향력의 대소와 경제성 등의 관점에서 민간 출판사(구체적으로는 Saur사)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출판을 포함한 최근의 도서관 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지금까지 도서관과는 소원하였던 많은 민간기업 및 기관과의 새로운 관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 온라인 전자출판의 수집에 있어서도 출판사와의 밀접한 관계가 필요하고, 정기적인 의견교환 회의를 개최하기도 하고(CLR), 연구팀의 멤버에 출판관계자를 참가시키는(BLRDD)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2) 국가의 정보정책과의 관련

BLRDD의 전신인 과학기술정보국은 영국의 과학기술진흥정책의 일환으로서 설립되었고, 영국도서관의 일개 부서로 이관된 후도 정책적 요소는 크게 남

아 있다. 국가 정보정책에 대한 책임감을 항상 의식하면서 정책결정을 수행해 가고 있다. 현재는 국가수준에서 일관성 있는 도서관행정을 수행하는 장으로서 「도서관정보위원회(가칭)」의 설립이 영국 문화재부에 의해서 준비되고 있고, BL 특히 RDD가 사무국으로서 동 위원회에 깊게 관여하고 있다.

한편 CLR도 도서관정보학국가위원회(NACLIS), 미국과학재단(NSF), 미국인문기금(NEH), 교육부 등의 공공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자금지원도 받고 있다. 또한 대통령직속으로 주도하는 NII(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GII(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계획의 관련 회의에도 참가하고 있다.

Ⅲ. 문헌정보학계를 위한 역할

영국과 미국의 도서관계 및 학계의 사정은 상이하지만, BLRDD와 CLR는 양국의 도서관계에 특정화한 국내 최대 연구개발지원기관으로서 도서관 및 문헌정보학의 발전에 공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은 다음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① 문헌정보학 연구의 미개척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문헌정보학의 학문영역 형성에 기여한 것, 단지 여기에서 말하는「선도적」이라는 것은 선구적 연구라기보다는 타분야의 선구적 연구의 성과를 문헌정보학에 도입하기도 하고, 미래의 문헌정보학계에서 핵심이 되는 주제를 발견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 ② 주요한 도서관, 문헌정보학 연구기관 (주로 대학) 및 개인 연구자의 연구개발능력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친 것
- ③ 현장의 도서관서비스의 개선, 보급에 공헌한 것. 예를들면, BLRDD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LIP(Library and Information Plan)은 영국내 50%의 도서관에서 이용되고 있을 정도로 보급되고 있다. 혹은 Loughborough대학을 중심으로 개발된 도서관서비스 성능효과의 측정기준과 전국

도서관통계의 표준화는 도서관경영의 개선 및 행정부문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CLR도 대체로 이와 유사하다. 앞서 기술한 서지통정 이론 및 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미국내 도서관 정보네트워크의 기반정비가 진전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 ④ 연구지원과 그 성과의 출판에 거치지 않고 성과의 보급과 신규 연구주체의 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회의(위원회, 심포지움, 세미나 등)를 개최하거나, 지원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연구자 및 도서관원들의 정보교류를 위한 장을 마련하고 있다.

IV. 결 론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BLRDD와 CLR은 자국의 문헌정보학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의 개선에 이바지한 역할이 대단히 크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연구비와 같은 일반적인 연구지원금과 함께 문헌정보학에 특정된 연구개발자금의 필요성은 미국이나 영국과 마찬가지로 생각된다. 지원제도와 이를 담당하는 기관의 설립방안에 관해서 향후 도서관계 및 학계에 활발한 토론이 개진되어야 할 것이다.